

# 전남지역 '억대 부농' 5천농가 돌파

전남지역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이 매년 꾸준히 늘어 5000 농가를 돌파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남지역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소득 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농업인은 5027농가로 파악됐다. 이는 2017년보다 465농가(10.2%)가 늘어난 수준이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3908농가로 고소득 농업인의 77.7%를 차지했다.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983농가(18.6%), 5억 원 이상은 186농가(3.7%)에 달했다.

최고농업경영자로 불릴 만한 농가소득 10억 원 이상 농가도 42농가(0.8%)나 된다.

품목별로는 식량작물이 1858농

2017년비 465농가(10.2%) ↑...10억원 이상 42농가 50대·고흥 최다...시설현대화 경영비 절감 등 주요

가(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축산 1790농가(35.6%), 채소 720농가(14.3%), 가공·유통 분야 330농가(6.6%), 파수 화훼 329농가(6.5%) 등의 순이었다. 식량작물과 축산, 파수·화훼 분야에서 고소득 농업인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86농가(41.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60대 이상이 1996농가(39.7%)였다. 40대 이하 청년농업인도 945농가(18.8%)나 돼 농업 분야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농업에 대한 비

전과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귀농인 고소득농가도 전체 농가의 2.7%인 282가구나 된다.

지역별로는 고흥이 571농가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강진 544농가, 해남 522농가, 영광 409농가, 보성 387농가, 나주 371농가 순이었다.

영광의 경우 보리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7ha 이상 규모를 갖춘 벼, 보리 재배농가와 축산농가 집중 육성 등에 따른 고소득 신규 진입 240농가가 늘어 시군 중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

김정환 기자



## 해수부 "저장-가공-유통을 한번에" 신안군에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천일염산업 발전방안 발표

천일염의 저장·가공·유통기능이 연계된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된다.

또 국제식품규격(CODEX) 염도의 97% 이상을 충족하는 등 해외수요를 충족시키는 고부가가치 천일염 제품을 개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천일염산업 발전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천일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방안에는 ▲고부가가치 천일염의 효율적 생산기반 구축 ▲천일염 생산자 체질 강화 및 수급관리 역량 강화 ▲천일염 유통구조 선진화 ▲수출경쟁력 강화 및 6차 산업화 추진이라는 4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천일염의 저장·가공·유통 기능을 연계된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 유통구조를 선진화한다. 전남 신안군에 사업주체다. 오는 2020년까지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또 김치류와 절임류에 대한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와 천일염이 려제 등을 시행해 소비자의 신뢰를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천일염의 효율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공계를 활성화시키고, 국제식품규격(CODEX) 염도의 97% 이상을 충족하는 등 해외 수요를 충족시키는 고부가가치 천일염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염전비대지를 개선하고 생산 환경에 대한 안전성 조사 등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이들러 생산자단체 자조금을 조성해 자율수급 관리를 지원하는 등 ▲생산자 역량 강화방안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관광자원으로서의 염전 활용을 통한 6차 산업화 등 천일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이 뛰어난 고품질의 식품"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천일염산업 발전방안의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천일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수급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



## 보해양조 '천년에' 소주 필리핀 시장에 진출한다

보해양조는 10일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출시한 '천년에' 소주가 필리핀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보해양조는 최근 필리핀 업체들과 '천년에' 수출계약을 맺고 오는 3월 초부터 현지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천년에'는 필리핀 현지에서 1000을 뜻하는 '밀레니엄 소주'로 판매되며 3월 중 1차 수출 물량은 2만3000병 규모다. 천년에는 필리핀 최대 규모 복합몰인 'SM MALL'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한류 열풍이 뜨거워 필리핀에서 한국 소주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20~30대 젊은층에게 꾸준하게 인기를 얻으며 마니아층을 형성한 천년이해 해외 소주시장에서도 한류(韓流) 열풍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필리핀은 한류에 대한 관심도 뜨겁지만 인구가 1억명이 넘어 주류시장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현재 베트남 업체들과도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동남아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실손보험 가입자 60% "보험료 인하해야"

전국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46.9%가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으며 60.3%는 '보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8일 전국 실손보험가입자 1000명(20~60대 가구주)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55.8%가 '민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9%로 낮았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미청구한 소비자는 5.1%로 적잖은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금액이 소액이어서 51% ▲청구절차가 번거로워서 27.5% ▲시간 여력이 부족해서

11.8% ▲비용이 들어서 9.8% 등의 순이었다.

올해 1월1일 기준 19개 보험사가 판매중인 98개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액지수를 매긴 결과 흥국화재의 '다이렉트 실손의료보험 표준형'과 다이렉트 실손의료보험 선택형II가 76.3%로 가장 저렴했으며 현대해상의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표준형이 85.0%로 뒤를 이었다. 다이렉트 상품은 보험설계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이다.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1월말 외환보유액이 4055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 전남우정청, 최고 연 3.3% 다모아 e적금 특판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강도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황금돼지해 우체국예금 착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우체국예금 특판 상품인 '우체국 다모아 e적금'에 가입하거나 우체국예금에 일정금액(수시입출식 100만원, 정기예금 500만원) 이상을 예치하면 추첨을 통해 총 3,019명에게 우체국쇼핑 한돈 세트와 한돈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새로 출시한 '우체국 다모아 e적금'은 총 1만 계좌 한도로 특별판 매하며 우체국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으로 가입할 수 있다. 판매량 최고 0.3%p와 개인별 거래 실적(최고 0.7%p)에 따라 최고 연 3.3%까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은 지난 달 18일 금리조정으로 가입 기간별 기본금리를 정기예금은 0.20%p, 정기적금은 최고 0.15%p 인상했고 이에 따라 3년 만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경우 각각 2.40%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